

5월 2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11~15 (5월 10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버리고 멀리해요.

1. 찬양

(새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 기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세요.

3. 말씀

열왕기상 15장 11~15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1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14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우리말성경>

11 아사는 그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12 아사는 유다 땅에서 *남창을 쫓아냈고 왕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 버렸습니다. 13 그는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목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14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습니다. 15 아사는 자기 아버지가 바친 물건들과 자기가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단어 설명>

- * 남창: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남자
- * 대비: 이전 왕의 아내
- * 목상: 나무로 만든 형상
- * 산당: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곳
- * 온전하다: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음

≡ 본문 이해

유다 왕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백성이 행하지 않도록 우상도 모두 없애 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던 자기 할머니도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산당까지 없애진 않았지만, 아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힘썼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 3년간 통치했어요. 이후 아사가 왕이 되어 남 유다를 41년간(주전 911~870년) 통치해요.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받았지만,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칭찬받았어요.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모두 제거하려고 노력했어요. 먼저 유다에 있는 남자 창기들을 모두 쫓아냈어요. 당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은 성전에 창기를 두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을 받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남자 창기를 곳곳에서 허용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었어요. 한편,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는 아세라 목상을 세워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긴 주요 인물이었어요(히브리어 ‘엠’은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등으로 광범위하게 번역되어요. 열왕기상 15장 1~2절에서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로 소개하기에 마아가를 아사의 할머니로 보는 것이 적절해요). 아사는 본보기로 그의 할머니를 대비 자리에서 폐위시키며 우상 숭배를 철저히 없애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와 그 문화를 모두 없애려고 했지만, 산당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백성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우상 척결을 위해 힘썼기에 하나님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 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왕상 15:1~2)

≡ 4. 나눔

1) 유다 왕 아사가 없애 버린 것들은 무엇인가요?(12~13절) 그런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11, 14절)

■ 저학년

아사왕은 유다 땅에서 무엇을 없애려고 노력했나요? (12~13절)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유아·유치

아사왕은 조상들이 만든 무엇을 없애려고 노력했나요?(12절)

▣ 질문 가이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모두 없애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가족조차 용서하지 않고 책임을 물었지요. 이러한 아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은 결심과 의지를 확인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던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과감히 버리고 없앴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아사의 행동이 조상 다윗을 따르는 것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숨길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다짐해 보세요.

2)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기에 내가 결단하고 버려야 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 저학년

나의 말과 행동, 생각 중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유아·유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할 행동이나 말은 무엇인가요?

▣ 질문 가이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이나 행동 혹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나 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끊을 수 있을지 나눠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구별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버리고 끊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결단과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죄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기에 꾸준히 반복하고 훈련해야 해요. 자신의 부끄럽고 약한 모습을 서로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끊어 버리고자 노력하는 다짐에 칭찬과 격려를 보내세요.

▣ 5. 감사하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를 버리도록 다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길 원해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7. 가족 미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과감히 버려요.

<누가 누가 잘 버리나>

*준비물: 좁고 깊은 통이나 종이상자, A4용지(1인당 5장 정도), 필기구(유성 매직, 연필 등), 셀로판테이프

1. A4용지에 내가 버려야 할 잘못된 행동이나 말 등을 적습니다. 이때 종이 한 장에 한 가지 행동이나 말을 적습니다.
2. A4용지를 구겨서 동그랗게 공으로 만들고, 셀로판테이프를 붙여 모양을 고정합니다.
3. 1m 정도 앞에 준비한 상자를 놓고, 종이로 만든 공을 던져 넣습니다.
4. 공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을 칭찬하고 보상해 줍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던져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 된 습관을 버리고 없애려는 결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 바라요.

* 주일예배 준비하기

가정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1. 부모는 자녀에게 주일의 중요성과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2. 마음으로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3.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일에는 가급적 다른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4. 단정한 옷을 준비합니다.
5.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일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